

企業情報管理와 圖書館

編輯者註 : 이 글은 1969. 8. 27~28. 兩日間 國防大學院
圖書館에서 開催된 特殊圖書館大會에서 發表되는 主題論文을 入受하여 掲載한 것임.

1. 序 言
2. 受動的인 圖書館 業務
3. 企業競爭과 情報管理
4. 企業體의 近代化와 情報管理
5. 企業情報의 種類
6. 企業情報의 秘密保持問題
7. 合理的인 企業情報管理
8. 結 言

1. 序 言

우리는 오늘 날 過去 어느 때보다도 情報氾濫의 時代에 살고 있으며 情報管理의 必要性이 強調되고 있다. 情報管理란 語彙는 生疏한 感을 주나, 이미 그 自體는 옛부터 떼빠로 利用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 날과 같이 人間關係가 그물(網)의 눈과 같이複雜化되고 automation이 널리 採用되어 大量生產, 大量販賣의 時代로 접어들게 되면 情報의 種類도 그 量도 龐大한 것으로 쉽게 해야될 수 없고 그 위에 情報管理組織이 또한充分히 確立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情報 洪水속에 휘말려 버리고 마는 結果가 될 것이다.

圖書館이 研究者, 利用者의 要求에 應하기 위한 單純한 文獻資料의 集積時代는 이미 지났으며 現在도 必要한 情報를 必要한 時期에 必要한 利用者에게 迅速하고도 的確한 提供을 할 수 있는 情報의 傳達回路 機構를 組織하지 않으면 안될 段階에 到達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다시 말하면 情報가 記錄된 資料뿐 아닌 움직이는 情報 그 自體를 取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學問의 專門化에 따라 차츰 分化·專門化的 傾向이 顯著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情報管理는 各 主題分野에 關한 理解를 깊이 하게 된다. 同時に 從來의 圖書館學에서, 미처 取扱되지 않았던 廣範圍한 知識 技術의 修得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생각하면, 圖書館學은 「書庫」라고 하는一次 資料의 空間的 集積을 中心으로 하여 資料를 如何히 Circulate하는가를 主要課題로 삼고 있는 것이다.

資料는 知識·情報가 記錄된 物體로서 處理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날 情報의 必要性의 增大는 過去 어느 때보다도 急昇하고 있다. 그 背景으로서는

李 正 浩
(漢陽大學校 圖書館 司書課長)

첫째, 研究活動의 量이大幅增加되어 걸잡을 수 없게 된 點.

둘째, 새로운 專門分野가 생겨나며, 從來의 分野가 몇 가지로 分割되는 點.

셋째, 어느 分野를 專攻하는 사람이 또한 他分野의 知識을 利用할 必要가 起起되는 點.

넷째, 世界的 視野에 서서 科學情報에 對한 要求가 많이 생겨 나게 되는 點.

다섯째, 共同研究, 組織의 大規模의 研究, 機械에 依한 資料整理 등의 出現에 의해서 科學의 數值, 知識을 매우 迅速히 求得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點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理由로 從來보다 많은 研究者가 보다 빨리 情報를 求하며 보다 넓은 地理의範圍의 情報를 쉽게 求하며 보다 깊은 分野의 보다 깊은 專門의 情報를 求하고 있는 것이다.

膨大一路이긴 하나,一面 微視的으로서 重要的 價値도 없는 情報의 涼中에서 圖書館側으로서는 어느 것을 手中に 넣고 그것을 如何히 處理할 것인가? 이것이 現代의 圖書館이 當面한 苦惱와 反省과 前進의 態度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新知識을 求得하는 者, 그것을 傳達하는 者, 또한 그것을 받아서 活用하는 者가 漸次 增加되어 次第에 分化하면서 그 위에 더욱 密接한 關係를 求하고 있는 것이다.

知識의 傳達은 이미 文獻에만 依存하는 時代는 지나갔다. 보다 넓게 보다 깊게 專門知識이 求해져서 보다 完全한 그리고迅速한 情報管理가 提唱되어 機械의 導入에 依한 情報管理의 自動化가 頻繁히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는 오늘 날인 것이다.

研究者가 아직 그 存在에 對해서 눈 뜨지 못한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 情報管理에 從事하는 사람의 責務가 아니겠는가. 學問의 分化, 情報의 泛濫에 對應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修得해야 할 하나의 新しい 技術은 文獻情報活動(Documentation)의 組織으로부터 求得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Documentation은 原來同一한 或은 類似한 主題의 研究者間의 Communication으로부터 出發한 것이며 거기서는一次 資料에만 依據한 Communication으로부터 例를 들면抄錄(abstrac)이라고 하는

二次資料에 依한 Communication을 必要로 하겠음 되었다. 即 二次資料化된 情報內容의 Circulation이 中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Documentation에서는 資料의 形態如何보다는 그 안에 含有되고 있는 情報를 如何히 해서 分析하여, 蔽集으로부터 蓄積에 이르는 一連의 움직임을 體系化할 것인가가 重視되고 있는 것이다.

勿論 二次資料에 依해서 必要한 情報의 所在를 探知한 研究者나 利用者は 一次資料의入手에 對해서는 어떻게 圖書館機能을 媒介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近代의 인 機能이 要請되는 우리들이 모든 情報資料에 關해서 組織의 인 探知, 蔽集, 處理(能率의 인 探索,迅速하고 的確한 傳達)를 講求하지 않으면 안될 오늘날 Documentation을 爲始해서 一連의 情報管理活動의 研究는 반드시 始作되지 않으면 안될 하나의 課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2. 受動的인 圖書館業務

우리가 恒常 使用하고 있는『圖書館』이라던가『情報센터』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모두 같은 性格을 지닌듯 하면서도 어딘지 아주 그 性格이 判異한데가 있다고 생각된다. 情報의 흐름을入手하여 處理하는 方法 即 Reactive mode는 圖書館에서 行해지고 있는 Service가 그 典型의 인 것으로서, 거기에 反한 情報Center는 Active mode의 service樣式 即 要求가 오기 前에 Center로부터 情報를 提供하는 일에 己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느 企業體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와같은 2個의 樣式이 共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음에 言及하고자 하는 바는 企業圖書室로서의 지켜야 할 諸原則에 대한 것으로 干先 제일 먼저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人的 資源과 物의 資源 및 財政의 인 脫脫침 이렇게 3個가 調和되어 Balance가 잡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原則은 企業의 使命達成을 爲하여 技術情報, 非技術情報의 如何를 不問하고 完全히 利用되도록 하는 것으로서『完全利用』이라고 하는 것은前述한 積極的인 Service樣式의 하나의 例로서 생각할 수가 있다. 例컨대『A』社가 情報의 完全 利用을 圖謀하기 위하여 몇개로 分散되어 있는 情報機關을 Network으로 結付시키며 各國에 散在해 있는 여러 情報機關網을 하나의組織으로서 糾合하는 일에 대해 注力할 것이다. 이와 같은 情報機關의 Level은 어디까지나 高度한 곳이 아니면 쓸모가 없다. 그러한 機關으로부터 나오는 Service가 可及的 程度가 높은 水準에 까지 到達하는 것이 重要한 일이다. 더욱이 情報機關이 所持하는 諸機能을 完全히 分析하여, 그 하나 하나가 어디에 連關되고 있는가 하는 認識이 또한 必要한 것이다.

3. 企業競爭과 情報管理

企業間의 競争에 있어서 現代의 激烈한 技術革新의 흐름을 더욱 더 端的으로 反映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新製品開發 競争인 것이다.

從來 價格을 中心으로 다투어 오던 企業間의 競争이 이제 技術을 背景으로 하는 新製品開發 競争으로 그 樣相이 變換되어 가고 있다. 그런고로 新製品開發의 成否가 그 企業의 死活을 가능하겠음 되었으며 競争의 勝者가 企業의 繁榮을 掌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기업은 過去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大體으로 政府의 保護下에 外國으로 부터 導入된 技術을 中心으로 企業活動을 해오고 있는 實情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직까지는 別로 獨創의 技術開發이나 新製品開發, 市場開拓 등 큰 隘路 없이 比較的 安易하고 順坦한 길을 걸어 온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의 企業도 國際의 企業競争의 隊列에 參與해야 될 探刻한局面에 處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對備해서 企業體의 體質改善이 時急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的確한 그리고 迅速한 企業情報管理體制의 確立이 要請되고 있는 實情이다. 新製品開發 競争과 情報管理는 企業運營上 必要不可分離한 關係에 있는 것이며, 新製品開發이란 研究 및 生產, 販賣의 組織으로부터 最高經營者的 意思決定에 이르기까지 모두 綿密하고도 合理的인 計劃과 科學의 評價에 土臺를 두고 實施되어지지 않으면 成功을 거두기는 매우 困難한 것이다. 情報活動은 企業에 있어서 將來의 方向을 決定하는데 있어 絶對의으로 必要한 것이다. 또한 研究管理者가 職務의 遂行上 必要로 하는 것, 研究者自身이 研究活動을 推進하기 위해서 必要로 하는 것, 企業經營者가 그 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는 것 등 各部門의 情報를 蔽集해야 하는 것이 要請되고, 그 要請에 即答할 수 있는 體制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이미 情報活動의 重要性이 認識되고 있으며 또한 研究體制의 機能도 活潑하여 높은 役割을 擔當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情報活動의 重要性이 識者間에多少 認識되고 있을 뿐, 아무런 表面化된 公式體制가 確立된 企業體는 혼히 볼 수가 없다. 또한 體制가 確立되었다는 치더라도 아주 原始의이며 未治한 點 뿐이다.

美國立科學財團의 調査에 依하면 한 theme를 研究하는데 모든 研究時間의 50.9%가 文獻調查에 所要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境遇는 그 以上的 時間을 消費해도 滿足치 못한 結果가 나을 것은 言及할 必要

도 없는事實이다. 또한研究費의面으로 볼 때도約12%程度가 적어도情報活動施設의不備不足 및 微弱한施設이나마그마저도活用할줄모르므로해서無價值하게流出되고 있는形便이다. 우리나라의딱한事情은研究者가新製品을開發해야한다든지또한다른研究活動을推進하기위해서,情報活動을個의으로進行해야되고그때문에자주離席을해야되고또한많은時間을거리에서或은書店에서또는各研究資料機關을몹시轉轉해가면서浪費해야하며必要以上的精力을無謀하게消耗해야함은勿論,그만큼그研究者가所屬한企業體는그以上으로有形無形의損失을自招하는結果가되고마는것이다. 이러한커다란企業運營上의loss를最高經營者가아직도皮膚로切實히느끼지못하는例가許多한것이다.

그런고로보통지기企業經營을위해서企業情報management을擔當할獨立된體制의部署를配置,確立하고그業務을擔當할專門職을確保해서研究者로하여금離席時間を可及的減縮시키도록努力해야할것을強調하는바이다.

4. 企業體의近代化와情報管理

現代의企業體는科學技術의進步에따라電子計算機을使用한事務合理화의研究를進行하는한편,商品의需給을生產調整에의해서合理的으로生產에反映시켜,企業體自體의繁榮과企業競爭에對處하는方法을逐次의으로實現해가고있는것이다.研究者나技術者가多量의科學技術文獻中에서必要로하는情報to自由로찾아내어消化不良을일으키지않고研究를繼續할수있도록하기위한情報management技術의發達도눈부신바있다.即企業體에있어서必要한情報가研究者個人의힘이아니고,情報management의힘이나電子計算機에의해서處理探索되는技術이開發되어가고있는터이다. 이와같이해서企業의近代化를情報management技法의發達에따라서크게left되는것이아닌가할程度로情報management의技術, System은日進月歩의發展을거듭해가고있는것이다.

情報management技術의改善이企業經營이나生產方式의近代化에도움이된다는것은굳이여기서具體的인事例를列擧치않아도짐작이갈것이다. 지금까지많은人間의勞動力에의해서處理되어온帳票나文書處理가,合理化된機械에의해서代置되며龐大한文獻類中에서必要한主題를檢索하는技術이人間으로부터機械으로옮겨가게된事實,多數의部品段階로부터生成되는機械, System等의作成을Program計算에의해서處理할수있는일이容易하게된事實은한결같이情報managementSystem의近代化에따르는것으로앞

으로도無限히發展展開될것으로豫想된다.

企業體中에서도가장많이情報management와結合되는分野로서는資料,企劃,調查의部門으로서社內로부터發生하는經營情報,會議資料,技術生產情報,研究data,圖面,統計類가 그主要한部門을차지하고있다. 또한社外로부터入手되는모든情報은各部門이나業務의性質에따라서活用되는method은相異하다고해도情報源으로서近代의method으로整備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要컨대蒐集된情報가綜合되어活用되는경우와또한그것을別途로分解해서다시한번調查檢討하여活用되는形態로再資料化되는경우가資料部門에서今後더우要求될것이라고생각된다.即情報와資料를再編成하는것이며,例컨데特定의統計資料의一部를複寫해서蒐集하던가,調查data를모아서集計하여別途의目的에도움이될수있는data를作成한다. 그의Data File方式에의해大略複雜하고張皇한資料를照合해서하나의資料로簡單하게編成하는作業이考慮되는것이다.

例를들면가령證券市場에있어서過去十數年間에걸쳐證券市場에上場되고있는企業體의決算報告data나營業報告書로부터流出되는資料를data file로서蓄積함에의해各企業體의動向을한눈에調查할수있게됨된다. 이것들은生產情報로부터逐次의蓄積으로서어느것은新聞Scrap을充實히蒐集分析한것이며,同時에雜誌및各企業體에서刊行된모든資料를分析評價해서情報源으로서活用할수가있는것이다. 이와같이數年間,着實히蓄積한情報to合理的으로使用함에따라서證券業界,經濟界的動向을窺知할수가있는것이다. 이와같은方式을採用하면特許,生產및研究部門이나一般營業部門에있어서도可히活用할수가있다고생각되는것이다.

5. 企業情報의種類

一般的으로情報to몇가지로分類하게된다.가령어떤사람에있어서入手된情報가情報로서아무런價值를지니지못한것이라고判斷했을때그것을일컬어無效情報혹은雜音이라고한다. 이것에反해서情報로서의價值를지닌것을특히有效information라고부르게되는것이다. 그러나入手하는사람에의해서無效information의경우가有效information로되는경우도往往있으며同一인경우에도그situation이變함에따라얼마前에無效information라고判斷되었던것이意外로有效information로서認定되는경우도흔히나타나게된다. 또한意圖的情報와非意圖的情報로區別하기도한다.

以外에도여러가지로分類할수가있겠으나여기서는企業이取扱하는情報에對해서만살펴보기로하-

겠다.

첫째, 企業 内에서 發生하는 情報
둘째, 企業 外에서 發生하는 情報
셋째가 公開情報와 非公開情報로 이와 같이 種類로
大別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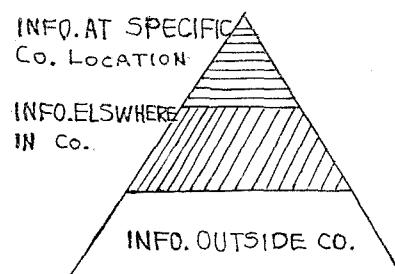
企業內에서 發生하는 어찌한 情報는 그壽命이 매우
짧아서 即時 그 價值가 消滅되어 버리는 性質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新鮮한 價值를 充分히 含有하고 있을
동안에 빨리 利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서 企業에
있어서는 時間이 매우 重要한 問題인 것이며 技術의 으로
他企業보다 繼續 앞선다는 일, 即 時間을 買收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企業外에서 發生하는 情報는 企業內
에서 發生하는 것보다 量的으로 相當히 많아 當然히
選擇이라고 하는 作業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많다고
해서 반드시 自社의 目的에 合致되는 것만으로 限
定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質的으로도 큰 差異가 있는 것이다. 公開情報
에는 特許, 政府公聽會記錄, 技術團體의 出版物 등이
있으며 非公開情報에는 例컨데 하나의 特許에 對한 企業의 態度(特許로 할 것인가, 企業內部에 그대로 간
직해 둘 것인가)에 對한 情報 또한 政府가 發한 質問에
對해 그 企業이 어찌한 對答을 했나 등과 같은 記錄
파악이 包含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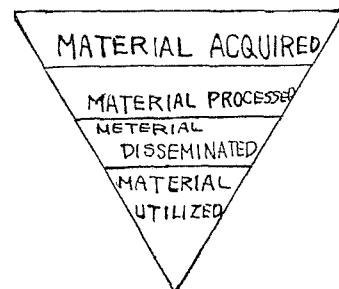
6. 企業情報의 秘密保持 問題

다음에 重要한 것은 企業情報의 秘密保持에 對한 問
題이다. 企業에 있어서 企業情報의 秘密保持라고 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集中管理와 分散管理가 있다. 例컨데
우리 나라 三星財閥의 경우를 例로 든다면 여러 傍系會
社中 製糖에 關한 技術情報에 對해 하나의 Section만
이 保持하는 경우와 會社全體에 周知시켜야 할 경우로
考慮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國內 會社만의 情報와
海外에 있는 支社에까지 전너 갈 情報, 또는 母社와 傍
系會社와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例示하는 第1圖는 三角形으로 表示됨과 같아
하나의 企業이 取扱하는 情報은 例으로 區分되어 下層은
企業外의 情報로 그 量이 매우 많은 것이다. 中層은
全社의 情報를 表示한 것으로서 自社內에 있기는
하나自己所管部署外에 있는 情報인 것이다. 上層은
當該部署에서 管理하고 있는 情報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第2圖의 逆三角形을 說明한다면 上層에 該當되는
部分이 入手된 全情報이고 그 다음 層이 處理加工되어
整理事項을 끝내고 利用할 수 있도록 마련된 資料를 表示
한 것이다. 그 다음 層이 實際로 業務에 혹은 研究에
傳達된 資料를 나타낸 것이고 下層의 적은 部分은 實



第1圖



第2圖

際로 活用된 資料의 比重을 表示한 것이다. 여기서 上
層의 幅이 넓은 것은 當然한 것이다.

以上 여러 項目에 걸쳐 企業運營에 있어서 必要不可
缺한 位置를 占하고 있는 企業情報를 어떻게 合理的으
로 管理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7. 合理的인 企業情報管理

合理的인 企業情報管理라고 한다면 簡單히 한마디로
말해서 干先『企業體內를 熟知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企業體에 從事하는 情報管理 專門職(圖書館
專門職도 包含)의 大部分은 情報處理 技術이나 專
門分野의 內容에 對해서는 이미 熟知하고 있지만 當該
企業體 그 自體의 目的이나 組織活動에 對해서는 外國의
專門家와 比較해 볼 때 모든 것을 徹底하게 調查 檢
討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상 같다. 이것은
또한 어디까지나 그 企業體와 그 組織에 있어서 뚜렷
한 Rule가 確立되어 있지 않은 點에도 關係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專門職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調查・檢討하여 把握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輪廓만
이라도). 外國의 例를 보면, 歐羅巴의 企業體들은 自
社의 傳統이라고 하는 것을 社內에서 徹底하게 訓練시
켜, 即 社風이라는 것을 個個人이 自身의 體臭와도 같

이 풍기고 있으나, 美國에서는 그點, 傳統보다는 能率이라고 하는 것에 더욱 主眼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組織이나 業務內容이 恒常 變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 나라 日本에서만 해도 戰後 20年間에 걸쳐 企業體의 經營方針이 Europe의 方面으로부터, 合理主義의 方面으로 기울고 있는 形便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舊態依然한 狀態를 脫皮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歐美式, 日本式, 在來式 等 도대체 분간할 수 없을 程度로 紊亂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若干 合理主義의 方面으로 變換되어 가는 듯 하다.

이와 같은 形便을 勘察할 때 情報管理를 擔當하고 있는 우리 專門職으로서는 一旦 企業의 組織形態나 經營方式에 對해서 再三 研究할必要가 있지 않겠는가. 時代의 推移에 따라서 企業은 漸次의 으로 體質을 改善하며 生產物의 改良에 努力하는 한편 社會의 動向을 正確히 直視하면서 檻를 쳐어가는 것이 말하자면 典型的인 經營者일 것이며, 또한 情報管理의 專門家라고 해서 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內容을 充分히 熟知하고 있을 것과 現在 各自가 遂行하고 있는 業務의 核을 正確히 分析하고 있지 않으면 情報를 取扱할 수가 없으며 그것을 또한 管理할 수도 없다는 것은 再論할 餘地가 없다.

情報管理란 内部의 業務를 無理가 없도록 調整하여 作業을 輕減시키는 機能이어야 하는 것이다.例컨대同一한 作業이나 研究가 進行되고 있을 경우 거기로부터 發生하는 作業報告나 研究報告를 調査하여 그것을 각 部門에 feedback함에 따라 改善이 되기 마련인 것이다.企業內의 動向을 Graph에 表示하던가 帳票(card)에 表示하던가 해서 現在의 時點을 正確히 把握해 두면 情報는 각 場所나 사람에게 提供될 것이다.入手하는 사람이나, 組織은 그러한 System이 있으면 安心하고 提供된 情報를 消化할 것이며, 成果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情報管理擔當자는 企業體內에 있어서 潤滑油가 될 것과 自動的으로 潤滑油의 量을 調査할 줄 아는 計器의 役割도 할 수 있는 管理의 要素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럼 다음에 企業體內를 熟知하여 合理化하기 위한 要點을 列舉해 본다면

- (1) 當該 企業體의 目的과 經營者의 方針, 施策事項
- (2) 組織機構와 그活動內容의 分析
- (3) 人事動向, 經營者의 配置, 研究者 技術者의 配置
와 그 分擔
- (4) 部門別 作業內容과 人間과의 關係
- (5) Data, 報告書, 圖面, 寫真 등 모든 情報源이 되는 것의 發生場所 check
- (6) 各部門으로부터 流出되는 情報源의 標準화와 그

統一(書式, 原稿, 用語, 記述方法, type, layout, 印刷, 規格, 치수 等)

(7) 情報資料의 集系路의 設定과 分析 評價, 薈積, 提供, 編輯, 廢棄 等

(8) 情報管理 System의 設定, 機械化와 그 活用 等을 들 수 있겠다.

8. 結論

企業情報管理를 위해 時急한 問題는 무엇보다도 標準化된 企業圖書室의 設置이다. 社內에 況濫하고 있는 企業情報は 體系의 蔑集, 處理, 加工하기 위해서는 干先 基本의 圖書館機能이 要求되는 것이다. 現下 우리 나라 企業體의 情報管理體制는 勿論, 基本의 圖書館機能 조차도 제 구실을 다 하는 곳이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形體만이라도 갖춘 圖書室도 또한 손 품을 程度가 아닌가.

요즘 간혹 大企業을 為始해서 中小企業體에서도 圖書室을 設置했다고 들린다. 그러나 그 規模나 機能의 面을 살펴 보면 塞心하기 限이 없다. 原始의 方法과 그 貧弱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情報管理는 簡單히 말로 만, 또는 Sense만으로는 到底히 그 實을 거두기 힘든 것이다.

企業情報管理에 있어서 가장先行되어야 할 事項은前述한 바와 같이 圖書室의 設置와 그 效果의 運營 問題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既히 設置를 본 企業體는 그 施設과 機能의 強化에 注力할 것이고, 앞으로 新設을 計劃하는 企業體는 어느 程度 自社의 與件과 實情에 알맞도록 標準化해서 情報管理作業上 支障이 없도록 留意함이 緊要하다. 企業圖書室의 標準化를 考慮하여 하나의 參考資料로서 다음과 外國의 例를 들기로 하겠다.

6個部門의 特殊圖書館을 構想해 본 것으로서 그것은 어느 特定한 圖書館이 아니고 몇 군데 圖書館의 統計資料에 依해 作成해 본 假想의 圖書館 規模인 것이다.

첫째 것이 製造會社의 研究圖書室인데 여기에는 大體로 利用者가 200名, Staff은 專門職, 非專門職 各 1名씩 圖書는 4,000冊強, 社內 Reports 500件, 場所 面積은 2,200m²이다.

다음은 製造會社의 研究開發部門의 圖書室이다. 이것은 먼저 約 4倍의 利用者인 800名程度 그 외의 數는 모두 數倍가 된다.

다음 公益事業會社에서는 6,000名의 利用者와 Service Staff 7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銀行의 圖書室도 같은 경우이지만例外의 數字로는 Pamphlets를 16,000件이나 所藏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點이다. 利用者가 400名, 職員이 7名이다.

PROFILES OF SIX SPECIAL LIBRARIES

	Res. Lib. ABC Mfg. Corp.	Lib. for R & D Div. DEF Indus. Corp.	Lib. for GHI Pub. Util. Firm	Lib. for JKL Bank	MNOP Advt. Agency Lib.	Lib. for R & D Div QRS Chem. Mfg. Co.
Probable Users Staff	200	800	6,000	6,000	400	150
Professional	1	5	3	4	3	2
Clerical	1	9	4	5	4	3
Collection						
Books	4,250	18,500	8,150	6,500	2,700	6,000
Govt. Cocs.					6,000	
Period. Voirs.	900	8,350	2,100	2,650	840	2,550
Pamphlets	2,500	2,000	8,500	16,000	3,000	8,000
Internal Rept.	500	5,000		2,000	4,000	1,500
Tech. Repts.		30,000				
Specs. & Stds			2,000			
Slides			6,000			
Clippings					8,000	
Pictures					8,000	
Comp. Advtg.						
File Items					5,000	
Patents						10,000
Tech. Corres.						5,000
Equipment						
Shelves	320	2,310	700	700	195	600
File Drawers	60	35	120	340	200	140
Space(Sq. Ft)	1,530	(Incl. vault) 8,375	3,580	4,130	2,225	3,020
Budget Ratios						
Salaries	70%	69%	69%	72%	Have No Budget	67%
Acquisitions	25%	26%	27%	25%		32.5%
Photocopies						
Binding	3%	3%	3%	2.5%		0.5%
Travel	2%	2%	2%	0.5%		

끌으로 化學工業의 研究開發部門의 圖書室로 利用者는 150名 程度, Staff은 5名이라고 하는 것을 標準으로 삼는다.

그 중에는 Chemical abstracts의 Copy作業도 勿論包含시키고 있다.

以上의 data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企業圖書室 및 Documentation service를 考慮할 경우에 標準화를 위해 參考가 될가 해서 옮겨 보았다.

企業體의 情報管理에 있어서 우리 專門職들이考慮해야 할 點은 그 情報管理體制의 確立과 合理的의 運營方法의 摂索이라 하겠다.

企業體의 組織에 있어서 干先統一性 있는 情報管理方針을 決定할 것과 同時に 企業體 内의 從業員自身들이 그 體制의 內容을 充分히 理解하고 活用하도록 積

極으로 啓蒙해야 한다. 또한前述한 바와 같이 企業內部를 充分히 熟知하여 計劃的으로 推進하는 役割을 擔當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企業體 内에 있어서 또한 觸媒와도 같은 作用을 하면서 情報資料를 合理的으로 作成할 것과 그것을 蔽集 分析해서 蓄積하여 知識을 提供할 수 있는 狀態의 System을 하루 速히 確立하여 그것을 大은 業務와 結付시켜 나가는 일이다. 끌으로 덧붙여 두고 싶은 것은 現在 우리 나라의 企業體에는 大概企劃室이라는 機構가 있다. 이 機構를 企業情報 management를 위해 잘 活用한다면 보다 좋은 成果를 올릴 것으로 確信하는 바이다.

앞으로의 企業競爭의 焦點은 情報management에 달려 있다는 것을 末尾에 附言해 두는 바이다.